

Dave Mathewson 박사, 해석학, 강의 6, 초기 해석

© 2024 데이브 매튜슨(Dave Mathewson)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우리는 지난 세션에서 해석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해왔고, 다시 두 세션 동안 계속해서 해석의 역사의 주인공과 주요 특징을 살펴보며 그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된 목적은 첫째, 어느 누구도 처음으로 성경 본문을 집어 해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실제로 구약 자체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오랜 전통의 일부로서 있습니다. 구약 저자들은 독자들을 위해 성경 본문을 선택하고 활용하고 해석하고 적용하여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해했습니다. 가장 먼저 문자를 집어 읽고 읽는 사람.

그러나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닫든 모르든 성경에 접근하고 해석하는 방식은 우리가 사용하는 것 또는 피하는 것의 측면에서 긍정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종종 빛을 지고 영향을 받는 방식과 영향을 보여줍니다. 부정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성경에 접근하는 방식은 종종 성경 본문을 다루어 온 오랜 역사에 빛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약성서 저자들을 살펴보고, 신약성서 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구약성서의 성취라는 확신을 갖고 어떻게 구약성경 본문을 자주 선택하고 활용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는 자기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절정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매우 흥미로운 본문은 히브리서 1장과 1절과 2절입니다. 이 구절의 첫 부분에서 저자는 어떤 의미에서 적어도 그 자신이 구약을 어떻게 읽었는지를 설정합니다. 신약 저자 히브리서 저자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들과 구약 저자들이 될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말세에는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을 제거하거나 가리거나 제쳐두는 분이 아니라, 구약이 가리키는 것의 절정이자 진정한 의도로서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신약성서 저자들은 예수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신 계시의 절정이자 성취라는 가정을 가지고 구약성경을 쓰고 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아마도 그리스도 자신에게서 유래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 곳에서, 특히 누가복음 24장과 같은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설명하시거나 주장하셨습니다. 불행하게도 누가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지 않고 단지 예수께서 구약 전체에서 어떻게 설명하셨는지를 기록합니다. 모든 성경이 그에게서 이루어졌으니 모든 성경이 그에게 가리켜 말한 바와 같으니라. 나중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복음을 요약하면서 “나에게 전해진 것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곧 예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말할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그래서 신약성서 작가들은 구약성경이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렌즈를 통해 해석되어야 한다는 가정을 가지고 작업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신약성서는 우리가 더 문자적이고 더 직접적인 예측과 성취라고 부를 수 있는 것에서부터 더 종류의 유추적이거나 모형론적인 유형의 성취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입증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드러낸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좀 더 문자 그대로의 성취의 예는 마태복음 2장과 5절, 마태복음 초반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어린 시절 이야기, 2장과 5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5. 제가 물려서겠습니다. 이것은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의 헤롯 왕에게 와서 이 메시야가 어디 있는지, 어디서 태어났는지 묻고, 헤롯이 알아보기 위해 그의 서기관들에게 가야 하는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그는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서, 그리스도 곧 메시야가 나실 곳이 어디 있느냐고 묻습니다. 분명히 헤롯 왕은 헤롯 왕의 왕좌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를 멸절시키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통치권을 인정받는 또 다른 왕을 가질 수 없으며, 자신의 보좌와 경쟁할 또 다른 그리스도나 메시아 왕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묻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그는 그를 죽일 수 있도록 알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5절 유대 베들레헴에서 그들이 대답하되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하였고 이제 미가서 5장 2절에서 인용한 것이니라 그러나 유대 땅 베들레헴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유다야,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본문에서 진행되는 몇 가지 다른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기본 수준에서 저자는 보고 적어도 서기관은 다소 직접적인 문자 그대로의 성취를 보았습니다.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사실은 돈이 별로 없는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명성이 높아질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2장 5절과 6절은 아마도 성경 본문의 성취를 문자적으로 더 직접적으로 읽을 수 있는 한 가지 가능한 예를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성취에 대해 생각할 때 예언이나 예상이 그 방법에 따라 성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예측했던 방식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및 18-21절에는 다른 예가 있습니다.

다시 무대를 마련하기 위해, 예수께서는 나사렛으로 가십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혹을 받으신 후 초기입니다. 이제 예수께서는 예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그분은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누가에 따르면, 그 다음에는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일어나사 책을 읽으시니라. 그 날 회당에서 읽을 것이 이것이었을지라 선지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고 펴서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기록된 바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갇힌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해방시키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다시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회복시키실 때, 이제 예수께서 문자 그대로 자신이 이것을 성취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 일어날 일에 대한 이사야의 약속 또는 예언입니다.

주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예수의 시험과 세례 때에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심을 보았거니와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눈먼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는 일,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는 일 등을 모두 하시며, 이 모든 일을 누가복음의 나머지 부분, 즉 예수의 사역에 대한 기록인 누가복음에서 행하십니다. 따라서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을 인용한 예인 누가복음 4장은 아마도 문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성취되는 예언적 약속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했듯이, 신약성경 저자들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구약성경 본문을 읽을 때 구약성서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는 다른 유형의 성취가 있습니다.

때로 나는 구약과 신약의 연관성을 확신하며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 것을 발견합니다. 특히 신약 저자들이 구약 본문을 인용하고 그것이 성취되었다고 말할 때 그렇습니다. 연결. 원문의 맥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구약성서 저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 신약성서 저자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펴보면 때로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유일한 가능성은 아니지만, 내가 자주 발견하는 가능성은 유형학적 또는 유추적 연결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구약성서의 과거 사건이나 인물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신약성서의 인물이나 사건의 모델이나 유형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의 바탕이 되는 가정은 구약성서의 저자가 실제로 이것을 예언하고 예측했다는 것이 아니라 신약성서의 저자들이 하나님이라는 확신을 갖고 활동했다는 것입니다. 옛 언약 아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셨고, 구속적으로, 역사적으로 옛 언약 아래서 그의 백성과 함께 일하셨던 동일한 하나님이 이제 더 큰 방법으로 역사하셨고, 옛 언약의 성취를 위해 이제 행동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 번 구원의 새 언약 시대에 그리스도라는 인격을 통해 그분의 백성을 더 큰 방법으로 구속하고 회복시키시기 위함입니다. 그러한 확신 때문에 신약성서 저자들은 종종 명백한 일치와 비유를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구약 하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이제 확대되었으며,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를 통해 훨씬 더 큰 방식으로 반복되었음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반드시 구약의 저자가 이것을 예측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문과 그것이 증명하는 사건이나 사람 내에서 우리는 현재 반복되고 채워지는 패턴이나 모델 또는 유형을 본다고 말합니다. , 더 큰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이 가져오시는 새 언약의 구원을 통해 말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좀 더 다루겠지만, 이것은 다시 마태복음 2장으로 돌아가서 마태복음 2장과 15절, 14절, 15절, 특히 15절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처음에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과 6장 2장의 일부에서는 예수가 본문, 즉 왕, 메시아가 유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라는 본문을 문자 그대로 성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제 우리는 구약에 대해 매우 다른 언급을 봅니다.

14장에는 천사가 나타납니다, 미안해요, 2장과 13절, 천사는 모세에게, 미안해요,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2장은 실제로 요셉에게 모세를 언급한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새로운 출애굽 모티브.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신약성경에서 구약성경의 사용에 대해 이야기할 때 다루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천사인 요셉이 그에게 나타나 그에게 아기를 데려가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헤롯은 지금 전쟁의 길에 있으며 그의 보좌에 대한 경쟁자인 이 메시아를 멸절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 이르되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머물라 헤롯이 그를 죽이려고 아기를 찾아보리라 하더라.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들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15절에 그들은 헤롯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내 아들을 불렀다 하신 것이 이루어졌느니라. 이 장, 이 인용문은 실제로 호세아 11장과 1절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과정의 뒷부분에서 신약성서의

구약 사용에 관해 이야기할 때 이 본문을 더 많이 다룰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언급하고 싶은 것은 마태복음 2장이 없이 호세아 11장과 1절을 다시 보면, 우리 대부분은 이 글을 예수 그리스도와 요셉이 그의 가족을 이집트로 데려가는 내용으로 결코 읽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은 후에 그를 다시 데려왔습니다.

사실 호세아 11장과 1장은 전혀 예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백성을 구출하고 구원하고 돌보는 하나님의 행위를 낭송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호세아 11장과 1장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예언이 아닙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을 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취를 어떻게 발견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을 예측으로 보는 대신, 마태가 이제 밝혀낸 이중 의미나 숨겨진 의미를 갖는 대신에 마태가 이 본문을 모형론적으로 읽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는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협으로부터 구출하고 구원하기 위해 행동하신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이제 그분이 지금 시작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으로 자신의 백성을 위협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더 큰 방법으로 행동하고 계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새 언약의 구원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건져내시려고 그래서 저는 호세아 11장과 마태복음 2장의 관계가 모형론적이거나 유추적인 관계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백성을 구출하고 구원하기 위해 일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더 큰 방법으로 다시 역사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첫 번째 출애굽에서 자신의 아들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 구원하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여 구출하셨으나, 이제 새로운 출애굽에서 하나님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 일을 성취하실 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출하기 위해 다시 행동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백성으로서의 성취에 실패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분명히 신약성서 저자들이 신약성서와 사건 및 인물, 특히 그리스도와 구약성서, 특정 사건 및 인물 사이의 유형학적 또는 유추적 연관성을 보았고 신약을 성취, 절정으로 보는 다른 예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 패턴의.

뒤에 있는 근본적인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성취의 시대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본문이 가리키고 기다리던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성서나 신약성서의 저자들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구속적 역사적 사건에서 자신의 백성을 구출하고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 것과 동일한 방식이 이제 한 시대에도 반복되고 있다는 확신에 비추어 선택되고 반복되는 유형과 패턴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세워진 새로운 구속적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제 때때로 신약성서 저자들은 랍비 해석의 전형적이거나 일반적인 방법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주제를 언급했거나 비슷한 단어를 언급했거나 유사한 어휘를 사용했기 때문에 두 개의 구약성경 본문이 하나로 합쳐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를 들어, 우리는 이미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마태복음 6장과 26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의 핵심이 무엇인지 생명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잘 알려진 산상 수훈의 맥락에서 먹거나 마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26절에서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어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먹이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들보다 훨씬 귀하지 아니하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새들을 돌보신다면, 본문의 나머지 부분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듯이 하나님께서 그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는 그의 백성을 확실히 돌보실 것이라는 주장이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주목해 보십시오. 그러나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과 5절의 또 다른 흥미로운 예는 우리가 말했듯이 저자가 옛 언약의 성경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입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쁘거나 열등하거나 쓸모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예수께서 성취는 절정이므로 그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신 절정의 계시이다.

이제 저자는 특히 예수님이 옛 언약의 일부이자 율법 수여의 일부였던 천사들보다 우월하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약의 여러 본문에 호소함으로써 입증하고 있습니다. 1장과 5절에서 그는 하나님이 천사들 중 누구에게 말씀하셨는지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첫 번째 인용문이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나는 네 아버지가 되었거나 다시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오늘 당신은 내 아들입니다. 나는 당신의 아버지가 됩시다라는 첫 번째 인용문은 신약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주 적용되는 왕실 시편으로 간주되는 시편 중 하나인 시편 2장에서 따온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가 다시 말하면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두 번째 본문은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다윗과 언약을 맺으실 때의 언약 형식의 일부입니다. 다윗의 왕좌에 앉을 왕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아마도 이 두 본문은 히브리서의 저자가 그랬는지 아니면 초기 기독교인들이 이 두 본문을 다른 곳에서 결합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는 아마도 랍비들이 때때로 단어 연관성과 어휘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구약성경 본문을 함께 가져왔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이 중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비슷한 표현과 비슷한 주제, 그리고 언약의 공식으로 인해 이 두 가지가 하나로 합쳐졌고, 저자는 이제 이것들을 하나로 모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그 성취를 다시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단어로 연결되어 있고 아마도 언약의 공식으로 인해 서로 연결된 두 개의 구약성경 본문의 예일 수 있습니다.

신약성서 저자들의 소망은 사해 두루마리와 쿰란 공동체, 랍비 해석자들의 자료를 요약하는 것이었고, 구약성서 저자들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계속해서 성경을 이해하려는 소망이었지만 또한 현대 독자들과 그들의 상황에 대한

관련성을 보여주기 위해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이러한 예 중 많은 것은 오늘날 훌륭한 설교자와 해석가들이 시도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관련성 현대 독자들에게 그 적용의 중요성. 따라서 성경 해석은 사실 구약성경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구약성서의 저자들은 나중에 구약성서의 저자들이 때때로 이전의 구약성경 본문을 선택하고 재해석하여 다음 세대를 위해 재주장 합니다 .

랍비들의 사해 두루마리 해석 방법. 그러나 이제 나는 조금 더 나아가서 구약과 신약을 넘어 아주 간략하게 초기 해석 방법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 간략하게 초기 교회 창시자인 사도 교부들부터 시작하고 싶습니다. 약 서기 100년에서 150년 사이의 신약성서 문서를 작성한 이후의 지도자들은 실제로 서기 약 100년에서 600년 사이의 더 큰 기간에 속합니다. 때때로 교부 시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교부주의는 대략 서기 100년에서 600년 사이의 더 넓은 기간이지만 교부들은 서기 100년에서 대략 150년으로 더 제한된 기간을 말합니다. 신약성경이 기록된 직후에 클레멘스, 폴리카르포스, 이그나티우스 와 같은 많은 초기 교회 지도자들과 초기 교부들의 이름은 실제로 구약성서와 신약성서 본문에 호소하고 해석하여 초기 성경 해석의 예를 제공하는 글을 작성했습니다.

종종 그들이 하는 일은 특히 발생한 거짓 가르침에 맞서 기독교 신앙을 정의하고 방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종 성경 본문을 해석하여 영지주의나 기독교 신앙과 반대되는 방법과 기독교 신앙을 지지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다른 이단적인 가르침. 실제로 제가 살펴보고자 하는 교부들의 해석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종종 모형론적 해석으로 알려진 것으로, 우리가 신약성서 저자들과 함께 살펴본 모형론적 또는 유추적 접근의 더 극단적인 형태이지만, 다른 하나는 보다 우화적인 해석이며 우리는 이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몇 가지 예를 제시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교부들이 특히 구약성서에서 자주 언급을 찾고 그리스도의 삶과 신약성서의 가르침에서 일치점을 찾는 유형론적 연구입니다.

예를 들어, 12장의 처음 7절에 있는 바나바 서신이라는 초기 기록에서는 출애굽기 17장에서 모세가 팔을 뻗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울 때 모세가 팔을 뻗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말렉 사람들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가 팔을 뻗고 있는 한 그들은 승리하지만 바나바 서신은 그것을 문자 그대로 팔을 뻗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죽음의 모형으로 봅니다. 그래서 다시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성경 전체를 성취하신다는 가정에서 시작하는 언급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출애굽기 17장에서 예수께서 팔을 뻗으셨다는 언급과 모세가 팔을 뻗으셨다는 언급을 발견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들어봤고 친숙한 또 다른 더 유명한 것은 First Clement라는 또 다른 문서에 있는 예입니다. 클레멘스 일서 12장과 7절은 라합의 붉은 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약성서의 정탐꾼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라합은 정탐꾼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그녀는 창문에 붉은 실을 걸어 두라는 책임입니다. 구약성서에 언급된 라합의 주홍색 실을 그리스도의 피의 모형으로

여겼고, 그래서 그는 저자를 보았습니다. 클레멘스 1세는 라합이 창문에 걸어 놓은 주홍색 실을 실제로 그녀의 모형으로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구원을 예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특히 모형론적 모형 해석이 담긴 두 권의 책에서 온갖 종류의 다른 예들을 발견하게 될 것인데, 그 중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구약의 어떤 작은 세부 사항이 그리스도의 삶의 어떤 세부 사항을 예표하는 것처럼 보이는 다소 극단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15~16세기 종교개혁 시대까지 대중화되기 시작한 성서본문의 해석방식은 마틴 루터와 존 칼빈에 의해 그때까지 지배적이었던 우화적 해석방식이었다. 특히 구약을 해석하는 매우 대중적인 방법으로, 구약의 어떤 사람이나 사물, 사람, 사건, 기관에 더 깊은 의미가 부여되었습니다.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주어졌으므로 일반적으로 물리적인 사람이나 사물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영적인 것에는 종종 그 진정한 의미로 여겨지는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제가 이미 모세의 팔을 뺀 모습으로 언급한 바나바 서신은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지 않고 특히 구약 율법의 여러 세부 사항에서 상세한 우화적 의미를 발견합니다. 이 기간 동안 교회 전통이 해석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시작했고 계속해서 그렇게 할 것이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종교 개혁의 마틴 루터와 존 칼빈, 특히 루터가 이에 반응하기 전까지는 교회 전통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교회가 믿는 바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존재한 첫 몇 세기 동안 교회의 초기 몇 세기 동안 성경 해석에 대한 지배적인 접근 방식 중 하나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와 관련이 있었는데, 그것은 우화적 방법이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실무자 중 한 명은 필로 필로(Philo Philo) 였습니다. 구약성서 본문, 특히 내러티브를 우화적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아마도 그것이 실제로 그리스 철학적 사상을 어떻게 뒷받침하는지 보여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구약성서의 내러티브를 다시 우화적으로 살펴보고 해석하여 문자 그대로의 물리적 사건에 대한 언급과 그 뒤에 숨어 있는 더 깊은 우화적 두 번째 수준의 의미를 찾는 사람들. 내 생각에 가장 잘 알려진 우화자는 서기 185년 에서 254년까지의 2세기 후반부터 3세기까지의 단어에서 유래한 것 같습니다 .

Origin은 구약을 우화적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그의 첫 번째 원칙에서 그의 해석학적 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읽을 수 있으며 Google에서 해당 번역을 온라인으로 찾을 수 있지만 해석학에 대한 그의 접근 방식에 대해 매우 흥미롭고 유익합니다. 그리고 해석. 기원은 특히 인간이 육체의 영혼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바울의 서신에서도 몇 군데에서 그 어법을 발견할 수 있지만 인간이 육체의 영혼과 영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바울의 작품에서 발견되는 아이디어에서 시작 되었습니다 . 성경을 합시다. 성경에는 육체에 해당하는 영혼과 영에 해당하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즉 성경은 문자적인 의미, 육체에 해당하는 물리적인 문자적 의미,

영혼에 해당하는 도덕적 의미도 있고 신학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정신에 해당합니다.

이제 이것은 오리진에게 중요했습니다. 오리진이 이것을 단지 허공에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당시에 중요한 방법론이었고 어떤 의미에서 그는 단순히 그 시대의 아이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는 또한 만약 성경 본문이 영감을 받았다면 확실히 표면적인 물리적 의미 이상의 것이 있지만 거기에는 더 많은 것이 있어야 하므로 그는 우화를 성경 본문이 영감을 받은 자연스러운 결과로 보았습니다. 더욱이 그는 흥미롭게도 우화를 개인의 지적, 영적 성숙의 표시로 보았기 때문에 실제로 영적으로 성숙하면서도 지적으로 기민한 사람이 텍스트를 우화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텍스트를 우화하는 사람이 성인이거나 정신을 잃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온갖 미친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 출처와 텍스트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자주 있는 경우입니다. 영적으로, 지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오리진은 흥미롭게도 그 반대 방향을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19장과 30절부터 38절까지의 룯이 그의 딸들과 성관계를 맺는 이야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나는 우화적으로 흥미롭게 이 본문을 이해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 번 기원에 있어서 이것은 어떤 가치가 있을 수 있는지 다소 기술적인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룯의 성적 착취에 관한 이야기에는 영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기원에 따르면 롯은
우화적으로 인간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롯의 아내는 롯이 그의 아내와 성관계를 갖는 것을 의미하지만,
롯의 아내는 육체와 쾌락을 상징하고 롯의 딸들은 교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는 각 인물을 선택하여 그들에게 기본적으로 본문의 가치를 부여하는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비유했습니다. 아마도 나는 그가 왜 그런 일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하고 싶지 않고 단지 기원이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그리고 롯과 그의 아내와 이야기에 수반된 우화적 방법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싶을 것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그의 딸들.

우화의 고전적인 예는 아마도 나중에 성 어거스틴의 비유 해석에서 나온 것이며
실제로 비유는 이런 종류의 우화적 설명에 매우 적합한 것으로 입증되었으며 꽤
오랫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어떤 사람 이 길에서 강도들에게 뛰어내려 맞아 반쯤 죽은 채로 버려져 있고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두 명의 유대인 지도자와 중요한 사람들에 의해
왔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구타당하고 사마리아인을
바라보는 사람이 전혀 예상치 못한 영웅을 만나서 붕대를 감고 그를 여관으로
데려가 그의 유지비를 지불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성 어거스틴은 이것을
우화적으로 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우화적 해석의 보다 고전적인 예 중
하나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비유에서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내려가다가 매를 맞았다고 말할 때입니다. 이 사람은 아담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은 비유적으로 하늘의 평화의 도시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은 물리적인 도시가 아니며, 예루살렘은 이제 아담이 타락한 하늘의 도시를 의미합니다. 여리고는 우화적으로 달을 상징하므로 아담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을 때린 강도들은 비유적으로 악마와 그의 천사들을 상징합니다. 그들이 그를 벗겨냈다는 사실은 그들이 그의 불멸성을 빼앗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그를 때렸다는 것은 그 사람이 죄를 짓도록 설득했다는 뜻입니다.

다시 그 사람은 아담을 비유합니다. 따라서 이 비유는 창조 이야기에 대한 일종의 해설로 시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를 반쯤 죽은 채로 두었다는 것은 그가 영적으로 죽었으므로 반쯤 죽은 것이라는 비유적인 의미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구약의 제사장직과 사역을 대표한다. 흥미롭게도 그것은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가지 사항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수호자라는 뜻이므로 사마리아인은 바로 그리스도이다.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했던 유대인 독자들에게는 오히려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스도 자신을 대표합니다. 상처에 붓대를 감는다는 것은 죄를 묶고 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름은 희망의 위로를 상징했습니다. 포도주는 열렬한 정신으로 일하라는 권고를 상징했습니다. 당나귀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육신을 상징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여관은 교회를 상징했습니다. 그가 그를 여관으로 데리고 간 다음날은 바로 부활을 가리킨다. 부활 다음 날 은화 두 닢은 이생과 내생의 약속을 비유적으로 상징합니다.

그리고 여관 주인은 사도 바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 어거스틴이 비유의 다양한 요소를 취하여 실제로 구약의 다른 곳에서 발견한 우화적 의미의 더 깊은 수준을 찾아 이 비유를 이해한 방법입니다. 나중에 비유에 관해 이야기하겠지만 나는 단순히 초기 성경 해석에서 지배적인 접근 방식이 된 우화적 접근 방식의 예를 제시할 뿐입니다.

이제 이 접근 방식은 확실히 많은 주관성과 남용에 취약하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초기 교회 교부들과 초기 해석자들이 한 일을 볼 수 있고 그것을 올바르게 피하고 특히 과잉과 극단을 피하고 싶을 수도 있지만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들이 했던 것과 매우 유사한 일을 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여전히 중요합니다. 텍스트를

관련성있게 만들려고 할 때 수행됩니다. 우화적 방법은 단지 성경 본문을 임의로 가지고 온갖 이상한 의미를 추출해 내는 것이 아니라 본문을 적절하게 만들려는 시도였다.

롯과 그의 아내 및 딸들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그것을 영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어떻게 관련되게 만들 것인가?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이야기를 오늘날과 관련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화는 무엇이든 해석이 항상 현대 독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주기 때문에

교훈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초대교회 교부들과 교부 시대의 해석의 다른

예들을 볼 수 있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두 가지 점은 첫째로 지배적인 접근

방식이 성경 본문을 우화하는 우화적 해석 우화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우화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텍스트를 해석하는 것과는 반대로,

그런 식으로 취급할 의도가 없는 것을 우화하는 것과 우화적으로 해석하는 것

사이에는 실제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초기 해석의 특징은 구약 본문을 특히 우화적으로 다루면서 본문 내에서

더 깊은 의미를 찾는 숨겨진 수준의 의미를 찾는 종교 개혁 이전까지 일종의

지배적인 접근 방식이 된 것이 특징입니다. 생기기 시작 하고 굴러가기 시작한

초기 해석의 두 번째 특징은 교회의 전통과 교회의 신학적 신념에 비추어

해석하는 초대교회 전통과 교회의 교리를 지지하고 반영하는 해석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이다. 신학. 따라서 우화적 해석과 교회 전통을 선호하는 것은 이제 구약성서에 대한 해석학적 또는 해석적 접근 방식이 지배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건너뛰고 다시 교회사의 다른 시기와 해석에 있어 중요한 개인들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건너뛰고 해석의 역사에서 몇 가지 주요 움직임을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16세기의 종교개혁으로 건너뛰고 싶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교회 전통에 초점을 맞춘 해석은 교회 교부들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우화적인 해석 방식에서도 크게 나타났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종교개혁의 해석학이나 해석적 접근은 이 두 가지 경향에 대한 불만과 반작용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우리는 마틴 루터와 존 칼빈 두 개인을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기 전에 일반적으로 종교 개혁이 히브리어와 그리스어의 원어로 된 성경 자체를 연구하는 데 관심을 갖고 심지어는 텍스트의 문학적 유형 중 원래의 역사적 맥락에 비추어 텍스트를 이해하려는 욕구. 이는 단순히 교회 전통에만 초점을 맞추고 성경 본문을 우화화하는 이전 접근 방식에 대한 반작용과 불만으로 종교개혁자들의 성경 해석 접근 방식을 다시 특징짓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접근 방식 뒤에 분명히 놓여 있는 한 가지 사실은 이제 종교 개혁과 함께 이제 성경이 더 이상 교회 지도자들의 손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해할 수 있도록 일반 사람들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의미와 초점 중 하나는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의 명료성이었습니다. 그것을 해석하는 데 교회 전통이나 권위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히브리어와 그리스어와 같은 원어를 배울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회 전통의 관점이 아니라 그 본문을 이해해야 합니다. 마틴 루터, 그 다음 마틴 루터는 종교 개혁 운동 중 가장 잘 알려진 사람 중 하나로, 구약과 신약을 다시 해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며, 교회 전통을 해석의 중심이자 성경적 권위의 중심으로 보지 않고 구약의 권위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성서 본문 자체가 지금까지 해석학이나 성경 해석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었습니다.

또한 루터는 성경 본문에서 단일 문자적 의미나 문자적 의미를 다시 옹호하고 여러 의미를 찾는 우화적 접근 방식과 직접적인 대조를 이뤘습니다. 4 개의 의미로 확장된 기원, 몸, 영혼, 영을 기억하십시오. 3개의 4개의 가능한 우화적 의미뿐만 아니라 이제 루터가 구약성서 본문에는 단일한 문자적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 것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기억하십시오. 루터는 또한 문법과 역사, 그리고 그것이 해석에서 하는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해석은 성경 본문의 역사적 맥락을 고려해야 하며 문법과도 일치해야 합니다. 루터를 읽을 때 그가 우화적 경향을 완전히 벗어나지는 않았다는 점은 흥미롭습니다. 그는 여전히 때때로 해석에 대한 이전의 접근 방식과 유사한 우화적이고 유형론적인 접근 방식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사실 루터가 그의 주석

중 일부, 특히 로마서, 특히 갈라디아서에 대한 주석이 여전히 갈라디아서를 이해하는 데 귀중한 공헌으로 여겨질 정도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사실 바울에 대한 현대적 이해 바울에 대한 현대적 해석은 기본적으로 루터와 새로운 관점으로 알려진 것, 그리고 우리가 그것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성경 해석에 심오한 영향을 미쳤고 이제 본문이 어떻게 접근되는지 그리고 내가 말했듯이 특히 갈라디아서에 대한 그의 주석은 일부 세부 사항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는 곳에서도 여전히 주석의 모델로 간주됩니다. 역사적, 문법적 맥락에 비추어 성경 본문을 해석하는 것.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간략하게 소개하고 싶은 또 다른 사람은 존 칼빈입니다.

존 칼빈 역시 우화를 거부하고 대신에 그의 해석을 성경 본문에 근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당신은 기독교 강요에 대해 존 칼빈(John Calvin)을 더 잘 알고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칼빈이 해석 원칙을 논의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잠시 후에 존 칼빈(John Calvin)도 성경 본문에 대한 주석을 썼지만 그는 성경 본문에 기초를 둔 의미와 해석을 추구했으며 따라서 본문 이면이나 배후에서 다중적이고 영적인 의미를 찾는 우화적 해석을 거부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칼빈은 또한 저자가 누구인지에 관해 텍스트를 역사적 맥락에 두는 해석에 대한 보다 문법적이고 역사적인 접근 방식을 옹호했습니다. 독자의 상황은

무엇입니까? 저자가 전달하려는 의도는 무엇이며 문법 요소를 검토 합니까?
 텍스트의 의미에 도달하기 위해 텍스트의 문법 구조를 파악합니다. 칼빈은 또한
 아마도 초기 교회 전통과 교회의 권위를 선호하는 경향에 대한 대응으로 성경
 자체가 최고의 해석자임을 이해하고 옹호했습니다. 이제 칼빈은 성경이 그
 자체로 최고의 해석자이거나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부 성경의 여백이나 각주에 평행하고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다른 본문을 가리키는 평행 구절이 있는 그 영향을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읽고 있거나 다루고 있는 것. 따라서 칼빈은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최고의 해석자라는 점을 매우 분명하게 밝혔으며, 주로 그가
 의미하는 바는 올바른 의미가 본문 자체에 있으며 의미의 최종 중재자는 교회의
 권위나 권위가 아닌 성경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전통. 사실 칼빈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높이 평가되는 주석을 썼습니다.

실제로는 얼마 전, 적어도 우리의 관점에서는 조금 전의 일입니다. 나는 어느
 유명한 신약학자의 교과서를 읽고 신약 성서 주석과 그가 언급한 대부분의 현대
 주석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설교자와 학자 도서관에 여전히 필요한 칼빈과
 루터의 주석을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요한계시록을 제외하고 성경의
 거의 모든 책에 대한 주석을 썼는데, 요한계시록은 그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고, 내가 읽은 내용 중 일부를 제시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더 나았을 것입니다. 그는 요한계시록에 글을 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칼빈에 대해 밝히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성경 본문에 대한 통찰력을 위한 주석에 기여한 점 때문에 오늘날에도 여전히 가치 있는 주석을 썼습니다.

따라서 루터와 칼빈은 의미의 중재자로서 교회 전통과 교회 권위에 초점을 맞춘 해석학의 표준적 접근 방식에 대한 반작용의 예이며, 이에 대응하는 우화적 접근 방식은 루터와 칼빈이 본문 자체를 의미의 중심으로 삼는 성경 해석 성경 해석의 예입니다. 항상 완전히 그렇게 하지는 않더라도 우화적 해석 방법을 포기하고 그 대신 텍스트의 역사적 문법적 의미에 초점을 맞추며, 두 사람 모두 주석과 해석에 여전히 귀중한 공헌을 하는 주석을 작성합니다.

요약하면 당시의 해석 흐름에 대응하여 종교 개혁이 당시의 해석학에 기여했으며 심지어 우리 시대에도 아마도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의미의 일차적 소재지나 의미에 대한 일차적인 기여는 교회의 권위나 단순한 교회 전통이 아니며 우리의 신학적, 교회적 전통이 되어야 한다는 점과 의미와 해석의 일차적 위치로서 성경의 우선순위입니다. 성경 본문의 의미에 종속됩니다. 그러므로 해석학과 해석이 일어나는 진정한 장소로서 본문의 우선순위는 종교개혁 운동의 공헌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본문의 문법적, 역사적 의미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많은 해석학 교과서에서는 여전히 문법적 역사적 의미 또는 문법적 역사적 해석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 논쟁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것은 종교개혁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히브리어 및 그리스어 문법과 같은 문법적 맥락을 고려하여 텍스트를 연구하고 역사적 맥락에 배치하여 텍스트를 연구 합니다 . 저자와 독자, 그리고 저자가 다루고 있는 상황을 이해한다. 또한 성경 자체가 최고의 해석자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것과 모순되는 해석을 내놓지 않는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 다시 생각해보면 종교개혁의 흔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경의 명확성이 드러났습니다.

누구나 그것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그것을 해석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종교 개혁의 유산에 기인합니다 . 때때로 우리는 그것이 사실이기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해석을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 개혁은 그것을 이해하고 읽을 수 있도록 사람들의 손에 다시 맡겼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에 이 모든 것들은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접근하는 방식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명확성을 강조함으로써 문법적,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함을 강조함으로써 이해 가능성을 강조합니다. 다른 성경과 일관되게 해석되어야 함을 이해하고 성경 본문을 성경 본문으로 만듦으로써. 우리의 해석에 있어서 그것을 해석학의 우선순위로 삼아 성경 본문의 의미의 중심이 되도록 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성경 해석의 역사에 대한 이 다소 간략한 조사는 주로 당신이 성경 본문을 집어 읽고 해석할 때 당신이 긴 이야기, 오랜 전통의 일부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성경 본문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무도 단순히 공중에서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백지 상태로 보게 되겠지만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처음으로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인식하든 모르든 당신은 본문을 가지고 씨름하고 본문을 해석하고 당신보다 먼저 구약성경까지 뺏어나가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습니다. 다음 세션에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몇 백 년 동안 또 다른 비약적인 도약을 하고 일종의 스위치 기어를 사용하여 밖으로 나가서 성경 밖으로 나가는 해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통역사.

해석학에 대한 최근 연구와 사고의 특징 중 하나와 우리가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 앞서 말했듯이 해석학은 더 이상 성경 해석가의 영역이 아니라 다른 학문 분야의 영역이기도 함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본문을 읽고 해석하는 방법에 대한 몇 가지 비성경적 영향을 살펴보고 그 영향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며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요 인물이 무엇인지 조사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 구절을 읽고 해석하는 방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